

월간

## KMI 아시아 오션 리포트

KMI Asia Ocean Report

KMI

2024년 2월 29일

No. 2

## 이슈와 동향 01

- 중국 각 연해지역, 해양 분야 '24년 업무 발표 ..... 01
- 칭다오시, '24년 중점 해양 사업 140개 추진 ..... 04

## 해양수산뉴스 7

- 중국 '해양 생태보호 레드라인 면적 15만km<sup>2</sup> 유지' 제시 ..... 7
- 머스크, 상하이에 국제 환적화물 혼재운송센터 설립 ..... 8
- 저장성, 해양경제발전청 설립 ..... 8
- 교통운수부, 「다렌항 총체계획(2035년)」 승인 ..... 9
- 2023년 중국 콜드체인 물류 수요 총량 3억 5천만 톤 기록 ..... 9
- 중국 창장 강해직항 LNG 추진선, 시험 운항 개시 ..... 10

## 포커스 11

- 중국 자무구 '제도형 개방' 추진과 대 중국물류 시사점 ..... 11

## 통계 및 자료 19

- 경제 일반/주요 컨 항만 물동량/조선 ..... 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발행인: 김종덕 원장 | 총괄: 박성준 센터장 | 감리: 한덕훈 부장

中國 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86-21-6090-0395~6

+86-21-6090-0397



## 이슈와 동향

### 중국 각 연해지역, 해양 분야 '24년 업무 발표1)

최근 중국 각 지방 양회가 잇따라 열렸으며, 이 가운데 11개 연해지역이 내놓은 정부업무보고 중에 해양경제 발전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올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11개 연해지역의 해양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랴오닝(辽宁)성은 해양경제 강성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육·해 통합의 생태계 보호·복원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지속가능 발전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 관련 국가급 혁신 플랫폼 구축 등으로 높은 수준에서 해양 과학기술 혁신력을 제고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선박·해양플랜트 장비, 해양 바이오 의약, 해양 신소재, 해양 정보, 해운 서비스, 해양 목장과 해양 관광 등 산업을 강대하게 발전시킴으로써 랴오닝을 중국 해양강국 전략 실시의 동북 거점 기반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2) 허베이(河北)성은 녹색·저탄소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석탄 사용을 촉진하고 풍력발전 사업과 신형 에너지 저장 사업 건설을 추진하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규모 목표치는 발전량 기준 1,500만kW를 설정했다.

3) 톈진(天津)시는 항만의 우위 발휘에 주력할 것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항만 작업과 해운 서비스의 스마트화 촉진 △항만·물류 종합 정보 서비스 공유 플랫폼 건설 △항만 효율성과 서비스 편리성 제고 등 조치들을 포함했다. 또한 중국 국내외 주요 항만·해운·물류 선도 기업과 혁신 협력을 강화하고, 수요·공급을 고려해 징진지(京津冀) 지역 발전을 위한 항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300만TEU 돌파를 목표로 제시했다.

4) 산둥(山东)성은 육·해 연동 및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심해 유전자은행, 심해 표본관 및 심해 빅데이터 센터 등 3대 국가 심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양플랜트, 해양 바이오 의약, 스마트 해양 등 우위 산업 클러스터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계급 항만군 건설 3년 행동계획'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스마트 세관·항만·부두 등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올해 연해항만 물동량은 20억 톤을 넘어서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소를 위해 5대 청정에너지 기지를 건설하고 보중(渤海) 해상 풍력발전 등 사업을 실시하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규모는 '1억kW 이상 도달' 목표를 세웠다. 해양 생태보호 분야에서는 연안 및 해양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생태 장벽을 견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2024년 2월 29일  
제 2 호

1) 海洋开发咨询(2024.2.2.), 2024年沿海省市政府工作报告“涉海”工作部署,  
<https://mp.weixin.qq.com/s/hMZzDAft5a5hsTX8jE-cow>(검색일: 2024.2.20.)



## 이슈와 동향

5) 장쑤(江苏)성은 올해 창장경제벨트 고품질 발전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산업 패턴 전환·혁신과 녹색 해운 등 시범사업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해양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육·해 통합과 강·바다 연동을 심화하여 10대 해양 산업사슬을 육성·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 체계 구축 가속화 △해상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안정적인 개발 추진 △연해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시범구와 녹색·저탄소 발전 시범구 건설 등 조치를 마련했다.

6) 상하이(上海)시는 해양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 해양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 해운중심’ 건설 추진을 위해 해운 자원에 대한 전세계 배치 능력을 강화하고, 선진 해운 서비스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운 보험 서비스 능력 강화 △해사 중재 모델 혁신 모색 △국제 선박관리 업무 개발 △상하이항운교역소 개혁의 안정적 추진 △해운 허브 기능 확대 △해항, 공항, 크루즈항 및 해운 집산·운송 체계 구축 △복합운송의 대대적 발전 △크루즈 경제 산업사슬 적극 구축 등 조치들을 마련했다. 이와 동시에 해운 디지털화, 지능화 및 녹색화를 추진하고 상하이 국제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 플랫폼의 경쟁력·영향력을 강화하며, 해운 무역 디지털화 시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녹색 메탄올 및 LNG 등 청정 선박 연료 공급시설을 되도록 빨리 조성하고, 순수 전기 추진 선박 등 녹색 운송 수단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7) 저장(浙江)성은 높은 수준에서 해양강성(海洋强省)을 건설하고 해양경제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성장력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세계 일류 항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 구도 배치계획, 컨테이너 부두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복합운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닙보·저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4% 이상 증가를 실현하도록 한다. 또한 △벌크화물 배치 중추 △국가 해양 청정에너지 기지 △국가 해양 과학기술 혁신 기지 등을 건설하고 △임항(临港) 화학공업 산업사슬 확장 △선박·해양플랜트 진흥 등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8대 행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8) 푸젠(福建)성은 해양 정보, 해양플랜트, 해양 바이오 의약, 임항 화학공업, 심수 양식 등 산업 발전 추진으로 해양경제를 강대하게 육성할 계획이다. 녹색 경제 발전에 있어는 전기 추진 선박 개발과 해상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첫 국가급 해상 풍력발전 연구·시험 기지의 건설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대외 개방 심화에 있어는 ‘실크로드 해운’ 항만·해운·무역 일체화 발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9) 광둥(广东)성은 ‘해양강성 전면 건설, 해상 신(新)광둥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경제 발전 구도를 최적화시키기 위해 항만·산업·도시 전체 구도 배치를 강화하고 광저우(广州)를 해양 혁신·발전 도시로, 선전(深圳)을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로 건설하

2024년 2월 29일

제 2 호



## 이슈와 동향

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주하이(珠海), 산터우(汕头), 잔장(湛江), 양장(阳江), 산웨이(汕尾) 등을 ‘특성화 현대 해양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현대 해양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해양 전자정보, 해양 신소재, 해양 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해양 청정에너지, 선박·해양플랜트 등 천억 위안 규모(千亿级)의 산업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 해양 종합 실험장 △국가 심해 과학조사 센터 △대양·극지 종합 보장 기지 등 건설을 통해 해양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상 풍력발전의 규모화 개발을 추진하고 신규설비 규모 목표치는 발전량 기준 200만kW를 설정하며, 해상 풍력발전 기지를 구축 해나가기로 했다. 어업 발전에 있어서는 △해상 목장 건설 △심수·원양 양식과 스마트 어업 △해양어업의 정보화, 지능화, 현대화 발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생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연안 및 해양공간 계획 수립 △해양생태 보호·복원 5대 사업 실시 △해양환경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에 대한 유형별 보호·이용 △연해 습지 회복 △‘아름다운 베이(Bay)’ 건설 등 조치들도 마련하고 있다.

10) 광시(广西)자치구는 ‘해양경제 대대적 발전, 해양강구(海洋强区) 건설 촉진’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플랜트, 선박 등 산업 클러스터화 발전 추진 △해양 관련 선진 서비스업 육성과 전통 해운 서비스 업그레이드 △해양 목장 건설 △심수·원양 양식 산업 클러스터와 베이부만(北部湾) 어항군 구축 등 조치들이 있다.

11) 하이난(海南)성은 양식, 해상 풍력발전과 레저 어업 등 산업 융합발전을 장려하고 해양 석유·가스, 심해 장비, 해양 정보, 해양 바이오 의약 등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4년 하이난성 해양생산 총액이 3,1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자 : 진선선 중국연구센터 중급연구원

(이메일 : chenshans@kmi.re.kr)

2024년 2월 29일

제 2 호



## 이슈와 동향

### 칭다오시, '24년 중점 해양 사업 140개 추진<sup>2)</sup>

#### 1. 칭다오 시정부 업무보고 중 해양 관련 주요 업무

지난 1월 29일 열린 산둥(山东)성 칭다오(青岛)시 제17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칭다오시가 올해 '정부 업무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에서 27개 중대 해양 기술 개발, 140개 중점 해양 사업 건설 촉진, 칭다오항(青岛港) 전체 계획의 새로운 버전 통과 실시 등 2024년 해양 분야 주요 업무를 제시했다.

**첫째, 해양 과학기술 혁신력을 강화한다.** △칭다오에 소재한 해양 관련 대학교·연구소 간 협동 혁신 △산·학·연 간 심도 있는 융합 △성과의 현지 상용화를 장려한다. △국가 심해 유전자 뱅크 △심해 표본관 △심해 빅데이터 센터 등 3대 국가 심해 플랫폼 구축하며, 국가기상국 산하 칭다오해양연구원(青岛海洋研究院) 건설을 가속화한다. 또한 해양 사물 인터넷, 심해 개발 등 분야에서 27개 중대 해양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해상 종합 실험장 등 중대 해양 기술 인프라 건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보다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해양선박·해양플랜트, 해양 바이오 의약품, 해양어업 등 중점 산업을 강대하게 육성하며, 총 투자액이 2,100억 위안 규모로 140개 중점 해양 사업 건설을 가속화한다. 칭다오 베이하이(北海)조선 등 기업의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대량 생산을 지원하고 선박·해양플랜트 국가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칭다오 바이오 의약 협동 혁신 센터의 2단계 건설을 시작하고 항종양 및 항바이러스 등 해양 의약품에 대한 혁신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해양 기능성 식품 등 산업이 뉴트랙(新赛道)을 선점하도록 우위를 공고히 다진다. 이와 더불어 115만kW급 해상 태양광 발전 사업 건설을 가속화하며, 중국선박그룹의 해양 신에너지 종합 이용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양식공선(养殖工船)의 규모화 양식 능력도 향상하고 대형 스마트 가두리 양식설비 '선란(深蓝) 2호'를 투입·사용하며 국가 심수·원양(深远海) 녹색 양식 시험구를 높은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한다.

**셋째, 국제 허브 항만의 경쟁력·영향력을 제고한다.** 칭다오항 전체 계획의 새로운 버전을 통과·실시하고 세계 일류 항만 건설을 촉진한다. 항만 인프라 집산·운송 체계를 구축하고 등자커우(董家口)항구의 광석 부두 등 중점 사업 건설을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 항만·세관·부두를 건설하고 '해상-철도 직송(海铁直运)'의 새로운 모델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칭다오항의 내륙항 구도를 배치하고 국가 벌크화물 저장·운송 기지 건설을

2024년 2월 29일  
제 2 호

2) 青岛早报(2024.1.30.), 2024年青岛将加快总投资2100亿元的140个海洋重点项目建设, <https://baijiahao.baidu.com/s?id=1789478028516351905>(검색일: 2024.2.18.)





## 이슈와 동향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와 동시에 해운 금융, 보험, 중재 등 선진 해운 서비스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 해운 종합 서비스 시범구를 구축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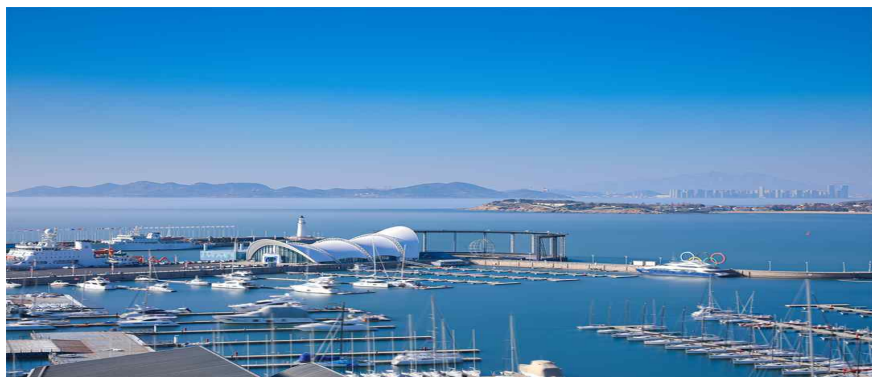
### 2. 선도적인 현대 해양도시 건설

칭다오 시위원회(市委) 당교(党校) 교육연구부(教研部) 마오젠펑(毛振鹏) 부주임은 선도적인 현대 해양도시 건설 촉진을 위해 칭다오시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 발휘, △선진 산업 도약 △특색 강조 △국제화 추진 등 4대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이하는 그의 제안 요지이다.

칭다오시의 선도적인 역할은 바로 칭다오의 해양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통해 발휘하는 것이며, 선진산업 도약은 경쟁력이 있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실현하자는 뜻이다. 국제화 추진에 있어, 해운 허브의 우위를 확대하고 통로를 개방하여 국내외 자원과 시장을 심도 있게 연결하고, 현대화 국제 해운무역 금융 혁신 센터를 구축하도록 한다. 2023년 칭다오항 화물 및 컨테이너 물동량은 각각 7억 톤과 3,000만 TEU를 넘어섰다. 또한 컨테이너 해상-철도 복합 운송량은 연속 9년 동안 중국 연해 항만 중 1위를 보유했다. 칭다오항 전체 계획의 새로운 버전이 통과되면 향후 국제 허브 항만으로서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칭다오시는 해양 특색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최근 칭다오 올림픽 요트 해양문화 관광구(Olympic Sailing and Marine Culture Tourist Areas)는 뚜렷한 해양 특색과 요트 문화로 중국 국가 5A급 관광지가 됐으며, 이는 시장 발전에 해양 특색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를 계기로 삼아 해양관광을 전반적으로 개발해 △관광 여객 터미널의 통합·업그레이드 △해상 관광 노선 신규 개설 △섬 관광 개발 촉진 △크루즈 관광 전면 재개 등을 통해 ‘칭다오 해상 관광’ 브랜드를 육성하도록 한다.

#### [ 칭다오 올림픽 요트 해양문화 관광구 ]



자료: <https://www.qosmcareas.com/newsDetail.html?id=10667>(검색일: 2024. 2.19.)

2024년 2월 29일

제 2 호



## 이슈와 동향

### 3. 해양 바이오 의약 산업의 잠재력 발굴 필요

칭다오시 인민대표 왕밍강(王明刚)은 칭다오를 해양 바이오 의약 산업 강시로 건설한다고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해양 바이오 의약 산업은 산동성의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전략적 신산업 중 하나로서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칭다오시는 중국 해양 의약 연구·개발 중심 지역이자 주요 해양 바이오 산업 기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칭다오 해양 바이오 의약 산업의 성과 전환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왕밍강 인민대표는 시장 지향에 따라 성과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는 △연구과제를 시장 수요와 연계할 것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험실 공동 설립과 인재 공동 육성 등을 추진할 것 △대학교·연구기관·기업이 회사 공동 설립으로 특정 과학연구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시장을 지향하고 기업을 주체로 하며 대학교·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른 사회 역량 참여로 새로운 상품 개발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칭다오 해양 바이오 의약 산업의 집적 발전을 추진하려면 선도 기업 육성, 산업 생태계 형성, 글로벌 자원과 기술에 대한 충분한 활용 등을 통해 산업 집적 및 규모 효과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왕밍강 인민대표는 이를 위해 현지 중점 기업과 사업 육성, 글로벌 고급 인재와 과학연구 팀 유입, 스타트업 기업 육성 등을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

작성자 : 진선선 중국연구센터 중급연구원

(이메일 : chenshans@kmi.re.kr)

2024년 2월 29일

제 2 호



## 해양수산 뉴스

### 중국 '해양 생태보호 레드라인 면적 15만㎢ 유지' 제시

-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는 「중국 생물 다양성 보호 전략 및 행동계획(2023~2030년)」을 발표했으며, 해양 생태보호 레드라인 면적에 대해 '최저 15만㎢를 유지' 요구를 제시함
-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육지, 내륙 수역, 연해와 퇴화된 해양 생태계 중 최소 30%에 대해 효과적인 회복과 보호·관리가 필요하며,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 보호 대상 면적은 육역 국토 면적의 18%, 육역 생태보호 레드라인 면적은 육역 국토 면적의 최저 30%를 차지해야 함

<https://mp.weixin.qq.com/s/STxNP15d-6QWVRw1trEh2w>

### 샤먼, 해양 탄소흡수 2만 톤 거래 성사

- 최근 샤먼재산권거래센터에서 2만 톤 상당의 해양 탄소흡수 거래가 성사되어, 푸젠(福建)성 블루카본 거래 시장 전망을 밝게 해줌
- 이 거래센터는 해양 탄소흡수 거래를 중심으로, 농업, 쓰레기 분리, 수토보지(水土保持)<sup>3)</sup> 등의 탄소흡수 거래를 보충으로 하는 '1+N' 탄소 거래 시장 체계를 구축함
- 또한 상예은행(兴业银行)과 함께 '블루카본 기금'을 설립해 중국 최초의 '탄소중립 항공권'을 내놓았으며, '탄소제로 금융센터' 등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있음

[https://mp.weixin.qq.com/s/XBbEIW2go\\_EQ2Jx1fAR2bw](https://mp.weixin.qq.com/s/XBbEIW2go_EQ2Jx1fAR2bw)

작성자 : 진선선 중국연구센터 중급연구원

(이메일 : chenshans@kmi.re.kr)

### 상하이시, '24년 업무보고에서 국제해운센터 건설 가속화 강조

- 1월 24일, 상하이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가 상하이에서 개막함. 궁정(龔正) 상하이시 시장은 시정부 업무보고에서 2024년에 상하이시는 국제해운센터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 특히, 해운 자원의 글로벌 배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 고수준의 해운 서비스

2024년 2월 29일

제 2 호

3) 수토보지(水土保持): 수분과 토사의 유실을 막는 조치





## 해양수산 뉴스

산업 적극 추진 △ 해운 보증보험 및 서비스 능력 강화 △ 해상 중재 모델 혁신 모색 △ 국제 선박 관리 사업 발전 등을 통해 상하이 해운거래소의 개혁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힘

<https://36kr.com/newsflashes/2616589415487620>

### 머스크, 상하이에 국제 환적화물 혼재운송센터 설립

- 1월 29일, 머스크(Maersk)는 상하이 린강(臨港)신구에 국제 환적화물 혼재운송(콘솔리데이션)센터를 설립함. 2023년 12월 말, 머스크는 상하이항에서 국제 환적화물 시험 운송을 완료하고 상하이항의 노선 배치, 국제 환적화물 혼재운송의 효율성, 통관 환경 및 기타 평가 요인들을 기반으로 린강신구에 국제 환적화물 혼재운송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한편, 머스크는 중국에서의 국제 환적화물 혼재운송 업무 확장 및 해운 허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샤오파이(捎帶, 외항선에 의한 수출입 화물 연안 구간 운송) 업무도 진행함. 첫 연안운송 수출 물량은 약 230TEU로, 머스크 라구나(MV. Maersk Laguna) 호를 통해 남미 화물을 들여오며, 중국 연안항을 돌아 다시 해외 항만으로 나감으로써 운송 기간을 약 7일간 단축시킬 수 있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789493733915720877&wfr=spider&for=pc>

### 저장성, 해양경제발전청 설립

- 1월 20일, 저장성 해양경제발전청의 현판식이 항저우에서 진행됨. 이는 성내의 자원 우세를 집중하여 저장성의 해양강성(省) 건설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지난 1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저장성 기관 개혁방안' 발표를 통해 저장성 해양경제발전청 설립을 승인함

· 해양경제발전청의 주요 업무로는 △ 해양, 항만 관련 업무 총괄 △ 해양경제 발전 추진 △ 해양경제 발전전략 수립 및 실시 △ 저장성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 과학기술혁신 추진 △ 항만 발전, 건설, 관리 총괄 △ Ningbo-저우산항의 일체화 발전 총괄 △ 육해 연동 추진 등이 설정됨

- 해양경제발전청은 저장성 발전개혁위원회, 교통운수청, 농업농촌청 및 기타 부처의

2024년 2월 29일

제 2 호



## 해양수산 뉴스

관련 기능을 편입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 해양 산업 △ 항만 △ 수산 △ 해양과학 △ 해양법 등 관련 기능의 통합을 통해 우세 자원을 집중하여 해양 경제발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임

[https://www.zj.gov.cn/art/2024/1/21/art\\_1545482\\_60194356.html](https://www.zj.gov.cn/art/2024/1/21/art_1545482_60194356.html)

### 교통운수부, 「다롄항 총체계획(2035년)」 승인

- 최근, 「다롄항 총체계획(2035년)」(이하 '총체계획')이 중국 교통운수부와 랴오닝성 정부의 공동 승인 하에 발표됨. '계획'은 2035년까지의 발전 일정표와 로드맵, 2050년까지의 발전목표를 제시함
- 동 '총체계획'은 총 길이 161.7km에 달하는 해안선과 476개의 정박지를 건설할 것을 제시했고 그 중, 만 톤급 이상의 정박지는 326개로 68.5%를 차지함. 계획된 항로는 30개, 묘박지는 17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및 크루즈선의 정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다롄시는 '총체계획'의 지침에 따라 계획 성과(成果)의 전환을 강화하고 다롄항과 랴오닝성 연안 항만들과의 협동 발전을 통해 컨테이너 간선 운송 및 에너지 물자 운송에 중점을 두고 물류, 무역, 해운 서비스 등 요소들을 집결해 운송 시스템을 개선하여 다롄의 동북아국제해운센터 및 동북아국제물류센터 건설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https://www.dl.gov.cn/art/2024/1/6/art\\_8718\\_2310955.html](https://www.dl.gov.cn/art/2024/1/6/art_8718_2310955.html)

### 2023년 중국 콜드체인 물류 수요 총량 3억 5천만 톤 기록

- 1월 24일, 중국물류구매연합회는 소비 수요의 지속적인 회복으로 2023년 중국의 콜드체인 물류 수요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힘
- 2023년 중국의 콜드체인 물류 수요 총량은 약 3억 5천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고, 냉장트럭의 보유량은 약 43만 2천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함. 특히 신에너지 냉장 트럭의 보급과 활용이 크게 증가함
- 한편, 산업 기반의 단점도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음. 2023년 콜드체인 인프라 건설 투자는 약 585억 5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함. 2023년 말까

2024년 2월 29일

제 2 호



## 해양수산 뉴스

지, 냉장 보관 용량은 약 2억 2,800만 m<sup>3</sup>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함. 그 중, 고표준 냉장창고의 비율은 약 62% 증가함

- 한편, 과채류, 육류, 수산물 및 기타 농산물의 저온 처리율은 각각 23%, 78% 및 80%로 2022년 수준보다 높아짐

<https://baijiahao.baidu.com/s?id=1788936145644377783&wfr=spider&for=pc>

## 중국 창장 강해직항 LNG 추진선, 시험 운항 개시

- 1월 24일,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후동중화조선그룹이 독자적으로 개발·설계·건조한 강해(江海)직항 LNG 추진선(1만 4천m<sup>3</sup>)이 도크를 출발, 부두 계류 및 항해 테스트 단계에 진입함. 동 선박은 세계 최초, 중국 최초 강해직항 LNG 추진선으로 올해 8월까지 시험운항을 마치고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임
- 동 선박은 길이 130m, 폭 23.6m, 깊이 15m로 중국선급협회(CCS)에 등록됨. 저항수 설계를 통해 원양 무제한 항행구역의 설계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창장 수로의 극저수위 조건에서도 내항성을 실현하여 무제한 수역 항행이 가능함. 또한 연중 내내 난징(南京)창장대교를 오가며, 원스톱 LNG 주입 운송을 실현할 수 있어 '창장 맞춤형' LNG 추진선으로 인식됨
- 창장(長江)은 연간 수로 운송량 30억 톤 이상으로, 중국 전체 하천 운송량의 60% 이상을 차지함. 과거, 창장 수로 운송은 경유 및 중유를 동력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의존해온 탓에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https://sghexport.shobserver.com/html/baijiahao/2024/01/25/1241889.html>

작성자 : 김명화 중국연구센터 행정원

(이메일 : jinminghua@kmi.re.kr)

2024년 2월 29일

제 2 호



## 포커스

### 중국 자무구 '제도형 개방' 추진과 대 중국물류 시사점

올해부터 중국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자무구'로 약칭)의 '제도형 개방'(制度型 开放) 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중국은 2022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대외 무역 부문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재확인하면서, 제도형 개방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 시진핑 총서기는 당대회 개막일인 10월 16일 행한 「보고」를 통해, '개혁·개방 심화 견지'(坚持深化改革开放)를 중요 원칙으로 천명하는 한편, 개방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推进高水平对外开放)을 2019년 중점 업무로 제시하고,<sup>4)</sup>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을 주요 대상으로 한 제도형 개방의 안정적인 확대를 주요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자무구 발전 방향 전환이 이로써 예고됐다고 할 수 있다.

2023년 6월, 제도형 개방 적용 대상(자무구·자유무역항)으로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베이징 및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이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중국 자무구의 선봉적인 상하이 자무구에 대해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에 대응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고수준 제도형 개방 전면 추진 총체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중국 자무구의 제도형 개방 시대가 개막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실질적인 추진 양상은 올해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무구 제도형 개방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영향을 전망하여 대 중국 물류 분야 활용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1. 제도형 개방 추진 배경과 특징

##### 1) 추진 배경

제도형 개방이 처음 언급된 때는 2018년 12월, 베이징에서 거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였다. 즉 이 회의는 중국 경제 운행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해(2019년) 중국 경제의 운영 방침으로서, 이미 같은 해(2018년) 7월 정치국회의가 천명한 '6온'(六稳)<sup>5)</sup>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외 경제 분야에서, '상품·요소 흐름(flow)형 개방'(商品和要素流动型开放)으로부터 '규칙 등 제도형 개방'으로 전환할 것 등을 새해 중점 업무로 확정했다.<sup>6)</sup> 이밖에 당일 회의에서 제시된 '전방위 대외개방' 과제로서 △ 외국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지식재산권 보호 △ 수출입 무역 확대 △ 수출 시장 다변화

4) 习近平(2022.10.16.), 「习近平：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而团结奋斗——在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p.27.

5) 6온은 '여섯 항목의 안정'을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은취업(稳就业, 취업 안정), 은금융(稳金融, 금융 안정), 은외무(稳外贸, 대외무역 안정), 은외자(稳外资, 외국자본 안정), 은투자(稳投资, 투자 안정), 은예기(稳预期, 기대 심리 안정)를 뜻함

6) 新华社(2018.12.21.), "中央经济工作会议举行习近平李克强作重要讲话"(http://us.mofcom.gov.cn/article/jmxw/201812/20181202820736.shtml)



## 포커스

△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 △ 무역과 투자 자유화·편리화 촉진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유자본, 국영기업 개혁 등 일련의 공급측 구조개혁<sup>7)</sup> 방안도 언급됐다.

### 2) 제도형 개방의 주요 특징

중국의 개방 정책은 2018년을 기준으로 ‘상품·요소 흐름형 개방’과 ‘제도형 개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품·요소 흐름형’은 2018년 이전 중국이 주력·구사했던 개방 정책으로,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에 발맞춰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함으로써 상품·요소의 흐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국경 개방)을 특징으로 한다.<sup>8)</sup> 중국은 2000~2018년, 이같은 개방 정책을 통해 세계 2대 경제로 올라서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반면 제도형 개방은, 경제·무역 발전을 상품·요소의 자유로운 흐름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무역의 구조 및 제도 자체를 좀 더 개방 지향적으로 고도화시켜 개방의 수준과 질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뜻한다.

중국이 당초 제도형 개방으로 전략을 수정한 데에는 대략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2017년 전후, 국제적으로 무역 보호주의가 대두하면서 중국의 시장 개척 공간이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첨단·혁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를 기반으로 한 생산요소 흡수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 무역 규칙이 대대적인 조정에 직면하고, 표준화 방향 발전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sup>9)</sup> 요컨대 중국 경제의 미래는 단순한 상품·요소의 흐름에 의존한 개방보다는 그 이상의 고수준 개방이 이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장된다는 것으로, 핵심 특징은 공급측 구조 개혁과 맞물려 중국 제조업을 선진화하고 개방을 심화시켜 경제를 고도화하는 ‘고품질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 2. 제도형 개방의 중국 자무구 적용

중국에서 개방은 곧 대외 무역 개방을 뜻한다. 따라서 제도형 개방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을 중국의 무역 성장과 경제·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온 자무구 및 자유무역항으로 삼은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다. 2023년은 때마침 중국 자무구 정책이 추진 10주년을 맞았던 해로서, 중국의 고품질 발전 목표에 맞게 발전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sup>10)</sup> 같은 해 6월, 중국 국무원은 「여건을 갖춘<sup>11)</sup> 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

7) 공급측 개혁은 이미 ‘13.5 계획’이 수립되던 당시 제기됐던 중국 경제 운영 방향으로 국영기업개혁, 경쟁 정책을 통한 중국 시장경제 개혁 등을 포함함. 주요 방향·내용에 대한 대표적인 해설서로는 吳曉濤(2016), 『供給側改革』 등이 있음

8) 이하 상품·요소 흐름형 개방과 제도형 개방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張二震·戴翔(2019.3.6.), “加快推动商品和要素流动型开放向规则等制度型开放转变”, 光明网 참조([https://theory.gmw.cn/2019-03/06/content\\_32609065.htm](https://theory.gmw.cn/2019-03/06/content_32609065.htm))

9) 위의 글

10) 자무구 10주년 성과와 중국 정책 당국의 자체 평가에 대해서는 박성준(2023.12), “중국 자무구 시행 10년 성과와 해운물류 시사점”, KMI아시아오션리포트, 제23-3호(포커스) 참조





## 포커스

역향 시점(试点)<sup>12)</sup>의 국제 고표준 제도형 개방에 대한 약간의 조치」(이하 「자무구 제도형 개방 약간조치」로 약칭)를 통해,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에 의해 제시된 제도형 개방의 자무구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자무구 제도형 개방 약간조치」는 모두 6개 분야 33개 조치의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3)</sup> 이 중 대 중국 물류·통관 영향,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 운영 방향 등에 참조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조치 사항을 발췌·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14)</sup>

### 첫째, 화물무역의 혁신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제조 제품 수입 완화)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베이징 5개 자무구와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에 대해, 시점 지구(试点地区)<sup>15)</sup>는 중점 산업<sup>16)</sup>과 관련된 재제조 제품(再制造产品)<sup>17)</sup>수입을 위한 ‘시점’(试点)을 개설하여, 국가가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품이라 해도, 국가가 지정한 신상품 활용 기술요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구(즉 중고 및 폐기)제품에 대해 시점 지구로의 수입을 허용한다.

(특정 화물 반출입시 관세 면제 또는 보세) 하이난자유무역항의 경우, 특정 화물(항공기·선박 및 관련 부품)에 대해 시점 지구에 등록된 기업이 수리 목적으로 해외(境外)<sup>18)</sup>에 일시적으로 제품을 반출했다가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 발생 유무를 막론하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대로 시점 지구에 등록된 기업이 수리 목적으로 같은 화물을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반입했다가 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단 반출하지 않고 중국 내수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照章征税).

(일부 특정화물 수입 편리화 및 원산지 표시) 언론 보도·영화 촬영 장비, 텔레비전

- 11) ‘(일정) 여건을 갖춘’이란 단서를 달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즉 22개 자무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님이 문건 제목에 명시되어 있음
- 12) 시점은 시험적 성격, 시범적 성격을 갖는 자무구 및 자유무역항 지역의 하위 단위로 이해됨. 예컨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와이까오차오 종합보세구(전체 시험구의 일부) 등 각각의 시점(즉 시험하기 위한 일정 면적의 구역)으로 간주할 수 있음
- 13) 이하 발췌·요약은 (중국)国务院(2023.6.1.), 关于在有条件的自由贸易试验区和自由贸易港试点对接国际高标准推进制度型开放的若干措施([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306/content\\_6889026.htm](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306/content_6889026.htm))에 근거함
- 14) 6개 분야는 ① 화물무역 혁신 발전 추진, ② (금융업 등) 서비스 무역 자유화·편리화, ③ 기업 인력 및 일시 입국(경) 편리화 ④ 디지털 무역 발전 ⑤ 금전거래 등 영업 환경 개선 ⑥ 리스크 예방 제도 완비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검토범위를 화물무역, 물류·통관 관련 항목에 국한함
- 15) ‘시점 지구’는 ‘시점’이 있는 관할 행정구(즉 ‘자무구’)를 뜻함. 여기서는 그대로 ‘시점 지구’로 사용함
- 16) 예를 들면, 상하이시의 6대 중점 공업산업은 전자정보 제조업, 생물의약 제조업, 설비제조업, 정밀강재 제조업, 석유화학공업, 자동차제조업 등임
- 17) 재제조(remanufacturing)는 오늘날 산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제품 재활용 및 혁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엔진의 경우 85%를 재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18) 境外(경외)[징와이]를 국내에서 일부 ‘역외’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잘못된 것임. 자유무역시험구 자체가 대외 무역 및 관련 통관 업무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 또는 ‘외국’으로 번역함. 중국 국적법에 따르면, 境外의 범위에는 외국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포함함

2024년 2월 29일

제 2 호



## 포커스

프로그램용 기기·설비·용품 등의 전문 설비(소프트웨어 포함), 전시용 화물, 상업용 건물, 광고 영상 및 녹음기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시점 지구로 일시 반입할 경우, 납세 의무자의 담보 제공을 전제로 관세(수입 구간의)부가가치세·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허용 기간 6개월). 또한 시점 지구 세관은 원산지 증명상의 인쇄·타이핑 착오 및 기타 경미한 착오 또는 차이를 이유로 기 부여된 관세 우대혜택을 거부할 수 없다.

(해외 표준 효력 인정 등) 시점 지구의 유관 부문은 비준 또는 기타 승인의 방식으로, 해외의 합격 평가기구에 의한 품질 평가에 대해, 중국의 합격 평가기구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절차 표준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포도주를 시점을 통해 수입할 때, chateau(酒庄), classic(经典的), clos(葡萄园) 등 포도주 제품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국어 라벨 표시를 허용한다.

### 둘째,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편리화 추진 조치이다.

(신금융 서비스 허용 등) 특정 신금융 서비스를 제외하고, 시점 지구 내에서 외국자본 금융기관은 중국자본 금융기관과 같은 종류의 서비스 영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점 지구의 등록 기업과 시점 지구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개인은 관련 법률에 의해 해외 금융 서비스를 구매<sup>19)</sup>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외의 전문직 종사자(境外专业人员)<sup>20)</sup>이 시점 지구 내의 기업·주민에 대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시점 지구는 해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능력평가 사무절차 수립을 지원한다.<sup>21)</sup>

### 셋째, 비즈니스 환경(营商环境) 개선 조치이다.

(자유로운 투자금 유출입)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관련 소유 이전 관련 금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유출입을 가능케 한다. 이에 해당하는 이전(转移) 종목으로는 자본출자, 이윤, 배당금, 자본수익, 특허권 사용료, 관리비, 기술지도료 및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부 또는 일부의 투자금 매각 소득, 전부 또는 일부의 투자금 청산 소득 등도 해당된다.

(정부 조달 투명성 제고) 시점 지구 내 조달인은 단일한 조달창구 방식으로 정부 조달을 진행하고, 거래성사 공고시 조달 방식 선정 사유를 설명한다.

(지식재산권 보장) 시점 지구 내 경영주체가 이미 공개한 특허권 신청과 이미 획득된 특허권에 대해, 주관 부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검색 및 심사 결과, 특허 신청

2024년 2월 29일

제 2 호

19) 원문은 跨境购买[과장겨우마이]로, 대체로 한국어의 '해외 직구'에 해당함

20) 변호사, 의료인, 강사 등 해당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 학위 등을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를 뜻함

21) 기타 서비스 무역 부문 조치 중에는, 시점 지구 내 외국인투자기업 소속 기업 인력(商务人员)의 임시체류 기간을 2년으로 연장(배우자 및 직계 가족에게도 적용)하는 조치도 포함됨(三, 便利商务人员临时入境)



## 포커스

인의 비밀유지 필요가 없는 의견, 특허 신청인 및 이와 관련된 제3자의 특허·비특허 판단 관련 인용 문헌 등)를 공개해야 한다. 시점 지구 법원은 경영주체가 제출한 지식재산권 관련 구체청구에 대해, 신청인의 특허권 획득 가능성이 있고, 그 권리가 현재 침해받고 있거나 장래 침해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합리적 증거를 제시하면,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법 규정에 의거해 이와 관련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주요 자무구 제도형 개방 추진 현황

#### 1) 상하이 자무구 고표준·제도형 개방 추진 총체 방안

2023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 상하이를 대상으로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에 대응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고수준 제도형 개방 전면 추진 총체방안」(이하 「상하이 자무구 고수준 제도형 개방 총체방안」)을 발표했다.<sup>22)</sup> 국무원이 동년 6월에 취한 「자무구 제도형 개방 약간조치」를, 중국 자무구 중 가장 발전됐고 요건이 완비된 '시험밭'인 상하이 자무구에 종합적으로 적용한 첫 제도형 개방 추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sup>23)</sup>

「상하이 자무구 고수준 제도형 개방 총체방안」은 '총체 요구' 및 △ 서비스 무역 확대·개방 가속화 △ 화물무역 자유화·편리화 수준 제고 △ 고표준 디지털 무역 규정의 솔선 실시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정부조달 영역 개혁 추진 △ '국경 후' 관리제도 개혁 추진 △ 리스크 방지체계 건설 강화 등 7개 분야 8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대(對) 중국 물류와 직접 관련 있는 분야는 '화물무역 자유화·편리화 수준 제고'로서, 주요 조치인 △ 특정화물 수입 요건 완화 △ 상업용 암호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해제 △ 통관 편리화 △ 세관 관리감독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정화물 수입 요건 완화) 여기서 말하는 특정화물은 수리 화물, 포도주·증류주 등 주류, 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자무구 내 세관특수관리감독 구역(海關特殊監管區域)으로 반입되는 수리 화물에 대해서는 반입시 보세를 실시하고, 해외로 재반출(复运出境)시 관세를 면제한다.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해서는 자무구 수입시 용기·라벨·포장 상의 상표, 상품명, 유효기간, 유통기간 등 제품 정보의 중국어 번역을 면제한다(단, 포장, 용기 문제 또는 부패성분 등으로 상기 기간이 단축될 경우, 이를 표시함). 자무구에 등록된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중국 의료기기 품질 관리 체제의 관리 하에 유통 또는 공급 전 세관특수관리구역(海關特殊監管區域) 내 규정에 따라 중국어 라벨 및 보조 라벨을 부착한다.

2024년 2월 29일

## 제 2 호

22) 상하이가 자체 수립한 것이 아니라 국무원이 직접 수립한 것으로 제도형 개방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23) 「상하이 자무구 고수준 제도형 개방 총체방안」의 첫머리에, '선행선시(先行先试) 발휘'를 직접적으로 언급함



## 포커스

(상업용 암호 제품<sup>24</sup>) 수입 제한 해제) 수입허가 목록 포함된 상업용 암호를 제외하고, 국가 안보 및 사회 공공이익에 저촉되지 않는 상업용 암호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안보, 사회 공공이익에 저촉되는 것 이외에는 상업용 암호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제품 사용에 대해 기술 규정 및 합격평가 절차를 강제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

(통관 편리화) 총 7개 항의 세부 조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① 양산특수종합보세구<sup>25</sup>) 내에 글로벌 혼재 기업을 유치하여 혼재(consolidation)센터(拼箱中心)를 설립<sup>26</sup>)하고 수출화물 혼재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환적 및 적출·혼재(拆拼箱) 등 다양한 업태와 공동 작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제 환적 및 화물수집 모델을 발전시킨다. ② 상하이 자무구의 수입 화물에 대해 해외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가 자무구 내의 대리인을 통해 세관에 예비관정을 신청할 수 있다(통관에 필요한 시간 단축 기능). ③ 해외에서 이미 검역을 마친 특정 품목의 화물에 대해서는 중국 내 검역을 간소화한다 ④ 상하이 자무구의 관련 표준을 제정 또는 수정시 해외의 이해 당사자 참여를 지원하며, 자체 규칙 등을 제정할 때 초안 설명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의견 수렴 기간 최소 60일). ⑤ ‘데이터 보안’을 전제로 상하이 국제 무역의 ‘단일 창구제’를 지원하며, 데이터의 초국경 교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때 국제공인 표준 및 획득 가능한 개방 표준을 채용하여, 데이터 체계의 겸용성과 상호운용성(交互操作性)<sup>27</sup>)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제 협력을 통해 데이터 교환 시스템 및 관리 영역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⑥ 물류기업의 ‘라스트 마일’ 배송 혁신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장려하며, 이를 위해 양산항에 자율주행(自动化驾驶) 지능 측정시험전용 도로를 건설한다. ⑦ 양산항 특수종합보세구 내의 시점은 시점 구역·항만 일체화(区港一体化) 관리를 개발하며, 통상구(口岸) 구역에서의 물류·가공을 허용하고, 화물적치기간 제한제를 폐지한다. 또한 해당 관리감독 조건에 맞게, 와이까오차오항만구(外高桥港区), 푸둥국제공항 등 상하이의 다른 통상구를 경유하여 양산항 특수종합보세구의 화물을 반출입할 수 있으며, 시점은 (이에 따라) ‘경여방행’(径予放行)<sup>28</sup>) 정책을 적용한다.

24) 상업용 암호 제품(商用密码产品)은 상업용 암호(비밀번호) 기술 등을 채택하거나 내장한 제품으로서 데이터 장비, 암호사용 전화기, 암호사용 복사기, 암호 사용 카드 등의 제품과 암호를 사용하는 각종 인증 시스템 등을 포함함. USB 사용 제품, ATM, 지능형 IC 카드, VPN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상당히 많은 전자 제품이 이에 해당함. 상세한 내용은 ‘상업용 암호 제품 인증 목록’(국가암호관리국 발표)을 통해서 확인 가능함

25) 상하이 자무구에는 2024년 1월 현재, 와이까오차오 보세구, 와이까오차오 종합보세구(전 보세원구), 양산보세항구, 양산특수종합보세구(2020.5~) 푸둥공항종합보세구, 진차오수출가공구(편구), 장강(张江)하이테크구(편구), 루자주이금융무역구(편구), 세계박람회(엑스포)편구, 린강신편구 등으로 구성됨. 이중 양산특수종합보세구는 후차오강(芦潮港)구역, 샤오양산따오(小洋山岛), 푸둥공항남부 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26) 양산항특수종합보세구는 상하이 자무구 중 린강(新)편구 관할이며, 혼재업은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호 ‘해양수산 뉴스’ “머스크, 상하이에 국제 환적화물 혼재운송센터 설립”(p.8) 참조

27) 영어 interoperability에 해당함

28) 중국 세관 및 통관 분야 용어로, 하나의 세관을 통과하면 그 효력을 인정해 다른 통상구에서 별도의

2024년 2월 29일

제 2 호





## 포커스

### 2)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2020년 6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이하 「하이난 자유무역항 총체방안」)과 이듬해 6월, 전인대를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자유무역항법」에 의해 설립·개발되었다.

하이난자유무역항은 ‘해외와 하이난자유무역항 간, 화물 및 물품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촉진함’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에서 자무구의 제도형 개방으로의 전환이 본격 공식화되기 전에 나온 국가 프로젝트이지만, 이미 「하이난 자유무역항 총체방안」 ‘기본 원칙’에 “국제 자유무역항의 선진 비즈니스 모델, 관리 방법과 제도 안배에 대한 참고”를 명시하는 한편,<sup>29)</sup> 무역 편리화, 투자 편리화, 조국경 자금유동 자유·편리, 운송·왕래 자유·편리 등을 주요 추진 분야를 ‘제도 설계’의 제하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 ‘통관 편리화’ 조항(제16조 등)에 ‘경여방행’(徑予放行)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통관 분야에서도 이미, 2023년부터 가시화된 제도형 개방의 주요 방향이 반영되어 있다. 2023년 국무원은 「자무구 제도형 개방 약간조치」를 통해 하이난을 제도형 개방 추진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자무구 및 자유무역항(‘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베이징 5개 자무구와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에 포함시켰다.

하이난은 자유무역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하이난자유무역항 수입 징세상품 목록’을 제정하고 이 목록 외의 화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복합운송에 유리한 지리적 입지를 자유무역항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환적 화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검사도 하지 않는다’(不征税 不检验)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하이난이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중점 산업은 선박 등록업 등 해운 산업과 항공 산업 분야이다. 우선 해운 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양푸항’(中国洋浦港)을 선적항으로 건설하여, 선박등록업을 발전시키고, 해운 경영관리 체계 및 선원관리 제도를 수립하는 한편, 항로 및 항권 제한을 완화하고 해운 노선을 선진화할 방침이다. 조선업과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투자 제한도 폐지했다. 2023년 「자무구 제도형 개방 약간조치」에 하이난에 대해 ‘시점 지구의 항공기, 선박(및 그 부품)이 일시적 출경 수리후 되돌아올 경우, 부가가치 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고 관세를 면제’가 명시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이난(양푸항) 선박등록업은 2020년 자유무역항법 제정과 동시에 개시됐는데, 등록 국제선박 수는 2022년 8월 33척, 2022년 8월 현재 40척이다.

2024년 2월 29일

## 제 2 호

통관 없이 통과시키는 것을 뜻함.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통으로 사용함  
29) 中共中央 国务院(2020), 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https://www.gov.cn/zhengce/2020-06/01/content\\_5516608.htm](https://www.gov.cn/zhengce/2020-06/01/content_5516608.htm))





## 포커스

### 4. 전망과 대 중국 물류 시사점

중국 자무구 및 자유무역항을 대상으로 한 제도형 개방 추진은 중국공산당이 방향을 잡고, 국무원이 총괄하는 국가 정책으로서, 2023년 6월 「자무구 제도형 개방 약간조치」의 ‘여건을 갖춘’ 광둥, 텐진, 푸젠, 베이징 등 주요 자무구에서는, 가까운 시일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충체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 자무구의 제도형 개방 전환이 대 중국 물류 및 항만물류(배후단지 물류) 측면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 관련 기초 시설 확대·투자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법률, 규칙을 통해 자무구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선진화하고, 국제 표준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 중국 자무구에서 국제 표준이 널리 받아들여진다면 그 자체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화주·물류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다(단, 일부 현지 물류업 관계자들은 특히 통관 편리화에 관한 한, 중국의 ‘제도형 개방’ 추진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은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반면 중국의 국제 표준 수용 및 채택은 중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중국이 만들어내는 서비스 상품의 국제 시장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물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품질 차별화 노력 등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자무구 제도형 개방이 (지역) 중점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하이의 경우 ‘특정 화물의 수입 제한 완화’ 조건은 상하이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관련 화물이다(수리 화물, 의료기기, 주류 포함 소비재, 콘텐츠 산업 제품 등).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조준하고 있는 중점 산업은 해운·조선·항공 및 해운물류 분야로서, 선박·항공기 및 그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제도를 차별화하고 있다. 향후 각 자무구의 재제조 및 수리 화물의 수입 증가세를 모니터링하여, 새로 창출될 화종 및 화물 운송 수요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각 자무구의 종합보세구, 수출가공구 등은 우리나라의 항만배후단지와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갖는다. 이 점에서 중국 자무구의 제도형 개방 주요 조치는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 발전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갖는다. 중국은 구역·항만 일체화(区港一体化)를 통해 통관 편리화를 추구하며, 한편으로 비즈니스 환경(营商环境)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통상구(口岸) 구역에서의 물류·가공을 허용하고, 화물적치기간 제한제를 폐지해버렸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 특화 및 부가가치 창출 방안 마련 등에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2월 29일

제 2 호

작성자 : 박성준 중국연구센터장

(이메일 : sjpark@kmi.re.kr)



## 통계 및 자료

### ■ 경제 일반

금융	2/23	2/9	2/2	1/26	1/19
대미달러환율	7.1064	7.1036	7.1006	7.1074	7.1167
1년만기국채수익율(%)	1.7699	1.9265	1.8903	2.0229	2.0841
통화	24. 1월	23. 12월	23. 11월	23. 10월	23. 9월
M2증가율(%전년 동기)	8.7	9.7	10.0	10.3	10.3
물가	전년 동기(100) 대비			전월(100) 대비	
	24. 1월	23. 12월	23. 11월	24. 1월	23.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99.2	99.7	99.5	100.3	100.1
생산자 물가지수	97.5	97.3	97.0	99.8	99.7
GDP	23. 4분기	23. 3분기	23. 2분기	23. 1분기	22. 4분기
GDP 성장률(%)	5.2	4.9	6.3	4.5	2.9
고용	24.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2년말	2023년말
전국실업률(%)	5.2	0.1pp	-0.3pp	5.5	5.1
경기	24.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2년말	2023년말
PMI(%)	50.9	0.6pp	-2.0pp	42.6	50.3
무역	23.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3. 1~12월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억달러)	2,282.8	2.2	0.2	25,568.0	-5.5
수출액(억달러)	3,036.2	3.7	2.3	33,800.2	-4.6

※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 ■ 주요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만TEU)

구분	2023년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11월	전년 대비
중국 전체	2,680	1.8%	4.4%	28,383	4.9%
상하이	421	5.3%	2.4%	4,440	2.8%
닝보저우산	260	-11.6%	9.7%	3,280	4.9%
선 전	283	20.9%	6.4%	2,689	0.2%
광저우	217	0.5%	0.0%	2,295	2.2%
칭다오	249	1.2%	12.2%	2,639	11.8%
텐 진	162	-11.5%	0.6%	2,108	5.6%
샤 먼	109	2.8%	-3.5%	1,145	1.2%
잉커우	49	16.7%	-16.9%	486	10.3%
다 렌	51	2.0%	15.9%	455	13.3%
베이부만(북부만)	71	-6.6%	9.2%	722	15.8%

※ 출처: 중국 교통운수부

### ■ 조선(만DWT)

구분	전 체		수출 선박		
	2023년 1~12월	전년 대비	2023년 1~12월	전년 대비	전체 비중
건조량	4,232	11.8%	3,453	12.6%	81.6%
신조선 수주량	7,120	56.4%	6,651	64.1%	93.4%
수주 잔량	13,939	32.0%	13,015	36.7%	93.4%

※ 출처: 중국선박공업산업협회

2024년 2월 26일

제 2 호

작성자 : 진선선 중국연구센터 중급연구원(이메일 : chenshans@kmi.re.kr)